

청.장년 성경공부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제 2 부**

**빛이 이기다 (요한복음 13~21장)**

**<학생용 공과>**

글쓴이 : 필 린스버거 (Phil Lineberger)  
게리 롱 (Gary Long)  
랜들 에버리트 (Randel Everett)  
빌 쉬엘 (Bill Shiell)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2부) - 빛이 이기다 (요한복음 13~21장)**

저작권 © : 2011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 1961 에서 했습니다.

### **BAPTISTWAY PRESS® Leadership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 한국어 집필위원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학습 공과 1과 ~ 5과, 10, 11과) 번역  
Saenuri Baptist Church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학습 공과 (6과 ~ 7과) 번역  
유운수 (뉴송교회)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학습 공과 (8과 ~ 9과) 번역  
김훈희 (First Baptist Church of Houston)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학습 공과 (1과 ~ 11과) 편집  
Saenuri Baptist Church

####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1년 5월

##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 학생용 공과 저자들

**Phil Lineberger:** 1~3과 작가이며 Sugar Land 침례교회 목사이다. 최근에 교회 이름을 Williams Trace 침례교회에서 Sugar Land 침례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필은 브렌다와 결혼해서 세 명의 딸과 9 명의 손자들이 있다. 그는 BGCT 회장으로, William Jewell College 와 Dallas Baptist University 의 이사로, Baylor University의 운영 이사로, 그리고 Cotton Bowl 체육 협회의 부회장으로 사역해왔다.

**Gary Long:** 학습공과 4~5과와 인도자 지침서 4~5과 작가이다. 게리는 Gaithersburg, Maryland 의 제일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전에는 Houston, Texas 에 있는 Willow Meadows 침례교회에서 사역했다. 또한 그는 North Carolina 와 Virginia 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했었다.

**Randel Everett:** 현재 BGCT 총무이다. 에버릿 박사는 6~7과를 저술했다. 그는 이전에 Texas, Arkansas, 그리고 Virginia 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했었고 또한 Arlington, Virginia 에서 John Leland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를 설립한 회장이다. 그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William D. Shiell:** 8~11과의 저자이며 Knoxville, Tennessee 에 있는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이다. 그와 그의 아내 켈리는 Parker 와 Drake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는 두 책을 저술했다: Reading Acts (Brill, 2004) 그리고 Sessions with Matthew (Smyth and Helwys, 2008). 그는 Baylor University 에서 두 개의 학위를 (Ph.D., New Testament; M.Div) 받았고 Samford University 에서 한 개의 학위를 받았다 (B.A.).

#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 2부 - 빛이 이기다 (요한복음 13장~21장)

학습 공과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학습 공과의 저자들

개요

### 단원 1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들

학습 일자

1과	_____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접근.....12 요 13:1-17
2과	_____	예수 - 진실로 유일한 길 .....19 요 13:31-14:14
3과	_____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 .....26 요 14:15-18, 25-27; 15:26-16:15
4과	_____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32 요 15:1-17
5과	_____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 당신도 포함해서.....38 요한복음 17

### 단원 2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6과	_____	예수님에 대한 판결.....45 요한복음 18:15-27; 18:33-19:16
7과	_____	생명을 주기 위한 죽으심.....52 요한복음 19:16b-30, 38-42
8과	_____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59 요한복음 20장1절-18절

9과	_____	예수님의 사역에 보냄을 받음.....66 요한복음 20장19절-23절
10과	_____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함.....73 요한복음 20: 24-31
11과	_____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79 요한복음 21장 1-23절

## 개요

###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 제 2 부 - 빛이 이기다 (요한복음 13장~21장)

요한복음은 성경 66권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요한복음에는 놀랍지만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들과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

- \*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요 13)
- \*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심 (요 14)
- \*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요 17)
- \*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심 (요 20)
-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심 (요 21)

#### 자세히 보기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고려해보는 것이다. 비록 요한복음 구절들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요한복음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잘 나뉘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요한복음 1--12장은 종종 표적들의 책으로 언급되고, 13--20장은 영광의 책으로 언급된다. 마지막 21장은 끝맺음이다.

####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과 1장 11절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에 나오는 개념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인 1장에서 12장까지의 제목을 빛이 비취다로, 두 번째 부분인 13장에서 21장까지를 이기는 빛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진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요한복음 1:5절인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와 1: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의 사상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부분인 1--12장의 제목은 "빛이 비취다"로 진술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인 13--21장은 "빛이 이기다"로 진술될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을 이기는

이야기다. 요한복음 13--21장에 대한 공부는 진정으로 빛이 이기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 (요 1--12장)

요한복음의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고 19절에서 51절까지는 침례요한과 어떻게 몇몇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끌리게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 관하여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표적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일곱 가지 표적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전부라기보다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대표적인 예라고 봐야 할 것이다(2:23을 보라).

이 성경구절들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특수한 단어는 다섯 가지 사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2:11; 4:54; 6:14; 9:16; 12:18). 또한 “표적”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건들도 있다. “기적”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23; 3:2; 6:26; 7:31; 10:41; 11:47; 12:37; 20:30을 보라).

요한복음, 특히 2-1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위의 장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러면 요한복음에 추가된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 본문들, 특히 2장에서 4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제 1단원에서 공부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유대식 전승과 가르침- 성결 훈련(요한복음 2장), 성전(요한복음 2장), 랍비들의 배움(요한복음 3장),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장소들(요한복음 4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은 단순히 기적을 의지하는 믿음과 진짜 믿음에 관해 대조하고 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다양한 유대인의 명절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해 가르쳐 준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나오는 명절들은 안식일(5장), 유월절(2-13-25; 6:1-71; 또한 12장에서 20을 보라), 초막절( 장막절로도 불림. 요한복음 7-9), 그리고 수전절(하누카, 10:22-39) 이다.

### 요한복음의 두 번째 주요 부분 (13--21장)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중 마지막 주와 부가적인 짧은 양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 13--17장은 다락방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장들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 도전, 그리고 격려의 말들을 나누어서 주셨다. 이 장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 (13장); 예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심 (14:6);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 (14--16장); "가서 열매를 맺으라" 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심 (15:16);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심 (17장)



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8--19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들과 의미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서 20-21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네 번 나타나신 것을 다루고 있다.



---

## 단원 1: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들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2부 의 1 단원은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룬다. 이 다섯 개의 과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장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의 주장 (14:6); 성령에 관한 그의 가르침들 (요 14장-16장); "가서 과실 맺으라"고 제자들을 도전하심 (15:16);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 (요 17장).

### 단원 1 :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들

1과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접근	요한복음 13:1-17
2과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요한복음 13:31-14:14
3과	성령 - 지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 14:15-18, 25-27; 15:26-16:15
4과	제자들이 받은 가르침	요한복음 15:1-17
5과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 당신을 포함한	요한복음 17

<b>[제 1 과]</b>	<b>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접근</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 13:1-17</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 13:1-30</p>	<p><b>학습주제</b>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본은 지위와 성김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도전한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어떤 식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종으로서 행동하는가?</p> <p><b>학습목표</b>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방법들을 생각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그의 제자들을 놀라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라야 할 하나의 본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들을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요 13장-17장). 그는 제자들에게 그가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를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는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가 명하신 일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다. 그는 비록 당분간 그들을 떠나지만 곧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는 성령께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될 것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다.

## 관습을 행하심 (13:1-5)

예수님 당시에는 집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초대 받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는 관습이 있었다. 길을 걸으면서 샌달 사이로 들어온 흙 먼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는 낮은 식탁 주변에서 한 쪽으로 기울여 앉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발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매우 가깝게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열 두 제자들은 다락방 위로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첫 번째 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발을 씻어주는 종을 찾았다, 그리고 종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제자는 자신의 발을 씻어야 했을까? 그는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걸 옷을 벗어야 했을까? 각 제자가 들어와서 식탁 주변에 둘러 앉았고 더러운 발은 옆 사람의 얼굴 가까이 놓이게 되었다.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보시게 되었고, 물이 있는 곳을 돌아 보았다. 그리고 걸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그의 허리에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다. 그는 그들에게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그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중요성 정도가 관습으로 세워진 세상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관습으로 알게 된다. 지위는 그들의 선택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배우, 스포츠 선수, 종교적 인물, 혹은 사업계의 거장일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우두머리의 관습을 뒤집어 놓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셨고, 또 다시 그 아버지께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가까움은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와지면 가까와질 수록, 다른 사람과 더욱 가까와진다. 요한은 이 것을 요한일서 4:12절에서도 언급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이고 자신을 부인할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다. 하지만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혹은 차갑게 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을 베풀었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습을 뒤집는 방식으로 반응하셨다.

## 본이 될 것을 행하심 (13:6-15)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한 번 말씀하신 것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5). 무엇이 예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시도록 하였을까?

누가복음은 22:24절에서 이 식사 장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줌으로써 예수님의 동기를 조금 더 살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가는 예수께서 그의 지상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즈음에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희생을 눈 앞에 두고 있었고 그의 제자들은 사소한 것들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논쟁이 어쩌면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동기를 유발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소한 것들로 논쟁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많은 회중들 가운데 지위와 명예에 대한 갈망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 지역 교회에서 많은 싸움들이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과 정치에 관련된 것들이다.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을 구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서로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뒤집어 놓으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을 세워 놓으신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분으로서 정기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비록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초기 침례교인들에게 규칙적인 관습이었지만 그것은 1800 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사라졌다. 어떤 침례교 그룹은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발을 씻는 의식을 치른다.

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소년이 그의 아버지가 주차장에 얼어붙은 얼음을 야구 방망이로 깨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따뜻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은 밖에 있었다. 몇 분이 지나서 그 아들은 집 안에 들어와서 차 위에 얼어붙은 얼음을 깰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어떻게 얼음을 깰냐고 물었을 때 그 작은 소년은 대답했다, "아빠가 주차장 얼음을 깰던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 야구 방망이로 깰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본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헬라어 성경 요한복음 13:15절에서 "본"으로 사용된 단어는 본, 양식, 혹은 예로 번역할 수 있다. 그것은 흉내내야 될 어떤 행동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발을 씻는 새로운 예배 의식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는 사랑, 동정, 그리고 섬김의 본을 세우시기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게 될 사람,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사람의 발도 씻겨주셨다. 그의 본은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서 5:8절에서 기록했던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다. 사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눅 9:23).

## 필요한 것을 행하심 (13:16-17)

우리는 편한 것을 하는 일과 필요한 것을 하는 일을 결정을 수 많이 접한다. 많은 신자들은 주로 편한 것을 하는 길을 걷는 경우가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과 같은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서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요 13:16). " 헬라어 성경에서 "진실"에 대한 강조는 그 문장의 초두에 헬라어 '아멘'이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강조된다. 그 단어는 이것이 참된 제자도를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13:16)는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겨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려면 그 전하는 자를 그분과 같이 섬겨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단지 존경하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에서 섬기는 것으로 이동할 때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동할 때 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아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아셨다. 그가 보이신 본으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다른 차원의 비교를 보이셨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신자라도 자신을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예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수 년 전에 한 나이든 지혜로운 목사가 잘난체 하고 자만에 빠진 젊은 목사를 지적하고 말했다, "저기 하나님이 가신다." 예수께서는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본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다 (마 20:26).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를 위해 발을 씻기시려고 하자 막으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비록 그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 이해할 것이라고 베드로를 확신시켜 주셨다. 그것은 베드로가 배우기에 어려운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에 비슷한 겸손의 섬김을 행했다. 예수님의 본은

베드로에게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벧전 5:5).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신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섬기게 될 때 진실로 "복"을 받은 자이다 (13:17).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길 때 그들 안에서 온전함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복은 단지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다" 에 대한 헬라어 동사는 모든 경우에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3:17).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을 통해 어떤 식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때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연구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각각 128불씩 현금을 지급 받았다. 그들은 그 돈을 자기 것으로 간수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선택한 자선 그룹에 기부할 수도 있었다. 그 연구는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뇌가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했고, 때로는 좋은 느낌이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보다 더 강하게 반응했다.

예수께서는 지위와 섬김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받는 것으로써 커다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더 커다란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 관한 요한의 이야기는 제자도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을 상기 시켜준다. 먼저 예수님의 본은 지위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의 주님이요 선생님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제자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사람들조차도 섬기셨다. 제자도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섬기는 것이 요구된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예수께서 우리의 세상에 수행하셨던 사랑의 섬김을 우리도 똑같이 수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제자도는 지식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 질문

1.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가?
2. 왜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말리려 했을까?
3.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가?
4.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긴 것은 어떤 경우들인가?

## [참고]

### 마귀와 유다

요한복음 13: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진술한다.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마귀가 이미 그 마음 속 안으로 어떤 것을 놓았다'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도록, 혹은 어떤 것을 그 마음 속으로 넣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의 심장, 혹은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 넣는 것은 제안의 힘을 통해 행해진다. 매력적인 제안, 혹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 제안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제공된다.

어떻게, 그리고 왜 마귀는 유다의 마음 속에 배신을 집어 넣는 일에 성공적이었을까? '넣다' 혹은 '자리 잡다'에 대한 동사의 완료 시제는 유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마침내 비등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놔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이 요한복음 11:57절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그 공회는 유다를 유혹하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것은 사탄이 탐욕을 통해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었을 수도 있다 (요 12:4-6). 사실 마태복음 26:14-16절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탐욕은 유다에게 매우 끌리는 유혹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우리는 사탄이 영향을 미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유다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벧전 5:8-9).

### 사례연구

당신 회사의 회장이 고용주로서 매우 힘들게 한다. 그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진급에서 몇 번 당신을 탈락 시켰다.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한다.

당신은 이 회장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수술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당신은 그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과 당신의 직장 동료들은 당신이 그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이 회장에게 당신의 피를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수혈을 해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b>[제 2 과]</b>	<b>예수 - 진실로 유일한 길</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 13:31-14:14</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 13:31-14:14</p>	<p><b>학습주제</b>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로서 자신을 제시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고 섬기도록 했다.</p> <p><b>탐구질문</b> 아버지께 가는 길로 자신을 제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p> <p><b>학습목표</b>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과 하신 예수님의 대화의 의미를 요약하고 오늘날 제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격려하는지 묘사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그의 임박한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예수를 보는 것으로 도마와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예수를 앞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몇 년 전에 나는 아내와 함께 족보연구 여행의 한 부분으로 노스 캐롤라이나를 방문했다. 우리는 노스 캐롤라이나, 달라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페인트 가게를 들러서 지역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 가게 주인은 우리가 도서관으로 가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우리가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인 나의 조상들에 대한 족보 연구차 가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말하기를, "오, 그렇다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은퇴한 우체국장에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드리죠." 그는 우체국장에게 전화를 했고 나와 아내가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 주었다. 초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듣기 전에 그 우체국장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그들을 위해서 가서 준비하고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요 14:6). 그는 자신을 믿고 성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어디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어떻게 살고 죽는지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생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 안에 두었던 믿음은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यो, 아버지께 대한 진리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제자들이 곤란한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꾸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사랑하시는 함께하심 (13:31-35)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실 때, 그는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그의 함께하심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따르는 본이 된 사랑이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최고의 함께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신 것이다. 더 나아가 세상에 행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는 사랑이었다 --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 시키신. 요한은 그의 첫 서신서에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 4:7) 라고 진술한다. 요한은 또한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은 곧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요일 3:16) 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

비록 비슷한 계명이 -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렘 19:18) - 구약에 나타나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다. 이 계명은 최소한 세 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것이다: (1) 그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 은혜로 - 사랑해야 한다. 은혜는 '선물'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랑을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혹은 받을만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선물로서 주어야 한다.

(2) 그것은 이웃에서 "서로"로 초점이 좁혀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도 사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통적인 관계 위에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다.

(3) 그것은 각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서 규명짓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제자는 훈령을 실행하는 자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훈령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준다.

신학교 학생으로서 나는 포트워쓰의 Travis Avenue Baptist Church 에 계신 James Coggin 의 스태프로 섬기는 특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코긴 박사는 특출나고 놀라운 지도자였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 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코긴 박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대학에 갈 돈이 없었다. 그의 누이 윌리가 그에게 와서 그의 첫 해 학비를 내기에 충분한 돈을 주고 갔다. 그가 그녀에게 어디에서 그 돈이 났는지 물었을 때, 그녀의 고등학교 졸업 반지를 팔았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는 눈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희생인가!

예수님의 함께하심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신다.

## 확신을 주는 함께하심 (13:36—14:5)

베드로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다 (요 13:36-38). 예수께서는 비록 베드로가 즉시고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재 확신을 주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죽음으로써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었다 (21:18-19).

예수께서는 격려하는 말씀과 그를 믿으라는 요청으로 그의 계시를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곤란한 마음들을 믿는 마음들로 바꾸도록 격려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그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 에 대한 두 개의 단어들은 명령적, 혹은 명령이다 (14:1). 예수께서는 그가 그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그는 그러고 나서 믿어야 할 네 가지 실재들을 열거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실재는 아버지의 집에 많은 "방"이 있다는 확신이었다. "많은" 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 갈 충분한 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도 공간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도가 가게 될 집, 가정을 가지고 계신다. 다윗은 기록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시 23:6).

둘째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진술 한다 (히 6:20).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한 장소를 준비할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의 강림에 비유 한다 (요 14:18).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신자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진술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그가 오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함께하심을 언급하는 듯하다. 이러한 이해는 몇 년 전에 교회의 한 소년의 목숨을 앗아갔던 교통사고를 기억나게 한다.

그 소년과 그의 친구는 한 시골 길을 운전하다가 차가 전복되었고 그 친구는 죽고 말았다. 나는 아침 6시에 병원의 응급실 전화를 받고 달려갔고 그 죽은 소년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나에게 "나의 아들이 죽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소?" 라고 쏘아 붙였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분을 분명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을 충만하게 아는 것을 의미 한다 (고전 13:12).

## 구원하시는 함께하심 (14:6-10)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진리들 중의 하나로 이끌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바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바로 자신이 "진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바로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표현한 각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즉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은 한 인격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오직 이 인격체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되어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친구가 됨) 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를 우리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요 1:17).

예수는 생명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 생명이 되셨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이라고 상기시킨다.

빌립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예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골 2:9).

## 능력의 함께하심 (14:11-14)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 14:12). 이것은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몇 백 배로 증가시키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혹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한 것이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의 능력의 함께하심은 그가 지상에 육체적으로 계셨던 제한적인 것을 훨씬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었다. 육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의 제자들의 능력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다 (요 14:12).

예수께서는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16:7). 성령의 능력의 함께하심은 그의 제자들이 흩어진 장소들에서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셔야 했다. 물론 그때도 시,공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지셔야 했다. 육체적인 기적들은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영적인 기적들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써 우리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기적들보다 큰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생명에 대한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 중 일부에 빛을 비추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참된 영광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참된 제자의 표시는 동료 신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확실히 알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주셨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함께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매일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

## 질문

1.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2. 동료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3. 사람들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성령께서는 언제 당신을 복음으로 인도하셨는가?

## [참고]

### 예수님의 영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는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역설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광을 존경, 인정, 지위와 보상 등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보통 영광을 순종과 고난으로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광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시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의 영광은 그의 부활 안에서 계속 되었다. 그의 영광은 그의 천국의 집까지



계속 되었다. 그의 영광은 지상에 다시 오심으로 극치를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든 면들은 그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요 2:11; 11:4; 17:4; 17:10).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돌려진 명예가 아니라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존엄을 돌리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다. 부모를 순종하는 아이는 그 부모에게 명예를 가져다준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올리셨다 (빌 2:6-11)고 우리를 상기시킨다. 예수께서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h2>[제 3 과]</h2>	<h2>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h2>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 14:15-18, 25-27;  15:26-16:15</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 14:15-16:15</p>	<p><b>학습주제</b>  성령을 보내심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역과 함께 하심을 제공한 것이다.</p> <p><b>탐구질문</b>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성령의 사역을 묘사하고 성령의 사역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하는데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길을 파악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적, 외적 임재하심을 약속하셨다. 성령은 예수님과 같을 것이며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스위스의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던 차에 스위의 알프스 산 위를 날으는 페레세일링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은 다름이 아닌 겁 없는 나의 아내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녀와 나는 알프스 산의 눈 위로 페레세일링 비행을 하다가 마침내 마을 중심에 있는 푸른 잔디 위로 착륙하는 모습을 관람했다. 그녀는 이 모험을 함께 해보자고 나를 졸랐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모든 이유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알프스 산 위를 페레세일링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것이 아내로부터 평생을 겁장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었다.

운까지 따라서 (?), 나는 그 비행의 첫 번째 순번이 되었다. 나와 함께 비행을 하는 전문 페레세일러는 그가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 계속 함께 하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도울 것이라고 나에게 거듭 확신을 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아주 신나고 성공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예수께서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켰을 때, 그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 버려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 15:18).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또 다른 분을 보내셔서 박해와 미움 속에서도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의 사역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따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 격려하는 함께하심 (14:15-18)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14:16)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파카클레토스'이다. 이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진 복합어이다: '파라'는 옆에, 곁에를 의미하고 '클레오'는 부르다를 의미한다. 제자들은 성령의 함께하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다. 그는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켰다. "또 다른"에 대한 헬라어는 '알로스'인데 이는 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의미한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고아"로 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또 다른" 분으로서 그들에게 왔다. 이 "보혜사"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신도들을 통해서 사역하실 것이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것이다.

"보혜사"에 대한 단어는 이 분이 몇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신자의 곁으로 불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곁으로 오신다. 신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은 몇 가지들을 포함한다: 법정에서 변호를 하시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곁에 오신다; 시험이나 역경의 시기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곁으로 오신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곁으로 오신다.

예수께서는 그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성령님과 의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하도록 모든 신자들을 격려하신다. 성령과의 생동력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사랑과 순종이다. 요한복음 14:21절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myself)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신자를 굳건하게 해주는 격려의 함께하심이다.

## 인도하는 함께하심 (14:25-27; 16:13-15)

예수께서는 결겨하시는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도하시는 함께하심을 약속하셨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 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심으로써 인도하실 것이다 (14:26). 16:13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묘사하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성령과 진리는 서로 밀접하게 묶여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붉은 잉크로 쓰여진 예수님의 말이 담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에 대한 주석서로 가서 살펴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상기시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신자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리킨다 (16:14).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단지 기억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 의해 체형되어지는 함께 하심이다 --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15).

오늘날의 신자들은 인쇄된 형태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할 기회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은 성령님의 제자 사역의 일부이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역사이다. 그것은 신자로서 성숙하게 하는 일이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완성된 사역이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올바르게 깨달도록 하는 일에 전혀 흠이 없도록 하신다.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에 관해 말한다. 또한 신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에 관해 말한다, 이는 성령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과 그들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함께 하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 확신을 주는 함께 하심 (15:26—16:15)

성령은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분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확신을 주는 분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의 주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만일 누가 성령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증거 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증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요 15:26).

성령께서 그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15:27, 새번역) 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8절에서 이 가르침을 반복하시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과 땅을 넘어서 세우시는 방법이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신실한 증인을 통해 하신다.

많은 경우 신자들은 불필요하게 예수님을 증거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증거 하는 것과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을 혼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전도하는 것과 간증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 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두 번째 증거자이다. 성령께서 이미 불신자의 마음속에서 일하셨다. 우리의 증거는 성령께서 이미 불신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사도행전 8:26-40절에서 발견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것에 대해 듣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게 함으로써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을 본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빌립을 이끄러서 그 증거를 완성시키신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하셨다. 성령의 함께 하심은 매우 확신을 주어서 그 내시는 즉시로 침례 받을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신자로서 받은 위임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죄, 의로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뉘우치거나' 혹은 '깨닫게' 하신다 (요 16:8-11, 새번역). 성령께서는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불신자가 그것을 아는데 실패할 수 없도록, 혹은 부인할 수 없도록 진리를 제시하신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께서는 불신자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신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를 한 뒤에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듣도록 설득하셨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행 2:37-38).

## 적용 및 실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몇 가지 엄청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상기키신다. 우리는 예수께서 곁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열 두 제자들과 같은 역동적인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와 같은 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며 우리를 통해 사역하신다. 우리가 접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부딪치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격려자,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 그리고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사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그 증거에 함께 하셔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킨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확신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 질문

1. 우리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할까?
2. 당신의 인생의 어떤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3.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호를 위해 오셔서 변호인으로서 일하시는가?
4. 당신이 성령께서 당신을 앞장 서서 가시는 증거의 기회를 경험했는가?

## [참고]

###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내가 ... 오리라"고 번역된 구절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이다. 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인 '내가 올 것이다 (I am coming)" 으로 번역될 수 있다. "내가 올 것이다"는 영속적인, 계속적인, 연속되는 예수님의 약속이다. 신자의 삶 속에는 보혜사의 함께 하심이 없는 때가 결코 없을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때가 인생 가운데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신자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육체적 제한 때문에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없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 그는 항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있다. 그래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향을 끼치신다.

## 사례 연구

당신이 인생 가운데 커다란 아픔을 경험한 한 동료와 함께 일한다.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의 엄마였던 그의 딸은 술 취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죽었다. 사고를 일으켰던 그 운전수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당신의 동료는 신자가 된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활발한 교회 멤버이며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한다. 그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가족을 버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위안하시고 도우시는 함께 하심을 그 동료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겠는가?

<b>[제 4 과]</b>	<b>제자들의 임무</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 15:1-17</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 15:1-25</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게 활력있게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께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 그 관계를 드러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p> <p><b>탐구질문</b>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있는가?</p> <p><b>학습목표</b>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 되는지 설명하고 제자로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는지 생각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항상 그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나의 할아버지의 농장에는 나의 어린시절의 기억으로는 약 20피트나 되는 두 그루의 포도 나무가 있었다, 하지만 실재로는 6피트나 7피트 정도 되는 키였다. 그 두꺼운 머스캇 포도나무는 여섯 개의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둥에 엄청나게 열매를 맺었다. 두꺼운 껍질은 열매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그 껍질을 꺾 쥐어 짜야지 속에 있는 단 포도 알매이가 입 속으로 들어왔다. 그 포도들은 천연의 당분이었으며 특히 차가운 아침에 그 당도가 강했다. 나의 사촌과 나는 그늘 아래서 포도를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들의 가지에 몸을 숨기곤 했었다. 때론 그 포도알을 야구 모자 안에 가득 넣고 매그놀리아 나무 근처의 언덕에 올라가서 누가 더 포도 껍질을 멀리 뺄 수 있는지 시합을 하곤 했었다.

슬프게도 지금은 오직 하나의 포도나무만 남아있다. 또 하나의 포도나무는 나의 할아버지가 거의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 그 집을 세들어 산 사람이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죽고 죽고 말았다. 아마도 그 가지치기를 했던 사람은 그 포도나무가 보기에 좋지 않아서 밑동까지 잘랐었던 것 같다. 아니면 아마도 그는 새로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렇게나 잘랐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쨌든, 그는 그 머스캇 포도나무를 조심스럽게 가지치기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교재를 쓰면서 그 포도나무를 생각 해왔다. 포도나무되신 예수님과 그 가지들인 우리에게 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 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나의 할아버지의 포도나무를 잘못 가지치기 했던 그 세입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가지치시고 모양을 만드셔서 신실한 삶을 살고 복음의 달콤함이 필요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으로 두려움 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 나는 포도나무 (15:1-3)

"나는 포도나무"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 이다"의 마지막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그리고 길, 진리, 생명이라고 묘사하셨다. 이 마지막 "나는 ~ 이다" 진술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진술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인데, 이는 농부, 포도 나무, 그리고 가지의 이미지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상호 관련성 있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가지로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지를 깨닫기 위한 강력한 이미지이다. 첫째로, 양육과 성장의 일이다. 성장을 위해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로 제대로 공급되는 양분,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필요한 그 적합한 양분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흐른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된 예수님에 의해 튼튼하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더 있다. 나의 할아버지의 머스캣 포도나무를 기억하는가? 나는 여전히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철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한다. 너무 깊게 가지를 치면 다시회복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너무 적게 자르면 너무 많은 푸른 잎이 생겨서 열매를 별로 얻을 수 없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모두 제거해버린다. 그 가지들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요 15:3) 되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본문으로는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나의 할아버지의 조심스러운 가지치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아주 적절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음으시고 모양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70년이 되었든, 7일이 되었든, 우리는 자라고 가지가 쳐진다. 우리는 맺을 열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내 안에 거하라 (15:4-7)

비전문가의 눈으로는 나의 할아버지의 머스캣 포도나무가 잎들과 가지들과 나무 몸통이 마구 엉킨 것처럼 보였다. 나의 할아버지가 세워 두었던 기둥들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겉으로 영성하고 영키게 보이는 그것에 대해 잘못 판단하지 말라. 각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그 포도나무는 각 가지에 양분을 전달해준다.

우리의 제자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거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지 주목해보라. 예수께서 이렇게도 많이 "거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에게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 연루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성경, 기도, 묵상, 그리고 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관계를 맺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고, 그래서 친절, 사랑,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방법이 그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하는 방식 속에서도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생활 양식인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로 틀이 만들어진 윤리적 의무들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서 거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감에 대한 것이다.

정말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 죽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원자가 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그리워하고 완전히 우리의 의지대로 그 영적인 여행을 해보려고 한다. 혼자 살아있는 가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할아버지가 어지럽게 엉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체계로서 하나의 포도나무에서 여러 갈래로 양분이 공급되고,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단 포도가 그리운 나의 배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 열매를 맺는다 (15:8-17)

포도운 용어는 예수께서 그의 작별 교훈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도원의 이미지로 가득차 있다. 이사야 5:7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는 것을 알게된다. 이사야 5:2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생산되기를 기대하셨는지, 하지만 그 대신에 신 포도를 생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포도 농작물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문서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공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 포도원 주인으로 오셨던 것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시계 변하지 않는 포도를 수확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발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계신다 (요 15:11). 12절에서는 사랑이 구체적인 명령이 된다. 이것은 가볍게 내 뱉은 말이나 부드럽게 동기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강력한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사랑하라 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그는 제자들에게 사랑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묘사하시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해

사랑스럽거나 감정적으로 매우 좋아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 자신의 목숨을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어 놓은 것 - 무조건적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 가를 가르쳐준다: "친구"로서 보신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가까이서 깨달도록 초청받은 가까운 친구들이다. 그 순간 바로 전까지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 (약 2:23) 라는 호칭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우리들을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사랑을 계명을 주셨을 때 바로 그 타이틀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건방지게 굴지 말자, 비록 우리가 "친구"로 불리지만 (요 15:15), 그 선택을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다 (15:16). 이 강조는 그 친구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시키는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적용할 방법은 많다,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이 당신의 삶을 다듬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포도나무 위의 생명. 오늘 본문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일으킨다. 당신은 포도나무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때때로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가? 포도나무 위의 생명은 세상이 종종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요청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당신은 포도나무에 어느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양분이 부족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예수께 더 가까이 성장하기 원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마도 당신이 살아계신 예수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일 것이다. 그는 살아 계시고 당신이 늘 당신 곁에 계신다.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자체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

1. 누가 포도나무, 포도원 농부, 가지인가?
2. "거하다" 라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가?
4. 당신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을 가지치셨던 것으로써 이제 이해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5.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신다 (요 15:15).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6. 열매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인가? 차이점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열매를 맺거나 혹은 만드는 일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 [참고]

### 열매를 맺는 것

포도의 질은 토양, 날씨, 그리고 포도가 받는 돌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알맞은 비와 햇빛을 받는 비옥한 토양은 이 땅에 많이 있다, 하지만 최상급의 포도는 단지 야생으로 크지 않는다. 최상의 포도는 가지가 쳐져야 하고 휴면기에는 모양을 다듬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성장기에 아주 달고 과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가지치는 것은 냉정하면서도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최고의 포도는 1년이 된 나무에서 자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농부는 최상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신다. 때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새가지가 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p>[제 5 과]</p>	<p>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 당신도 포함해서</p>
<p>핵심본문 요 17</p> <p>배경 요 17</p>	<p><b>학습주제</b>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 사역하는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서로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도록 기도했다.</p> <p><b>탐구질문</b>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믿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면 왜 우리는 최소한 서로 잘 지내지 못할까?</p> <p><b>학습목표</b>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요점들을 파악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보다 잘 지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파악한다.</p>

## 들어가기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어떤 것이 언급되어지는 '때'는 그 말 자체의 중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그가 유다에 의해 배신 당해서 조롱자들의 재판에 넘겨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그 기도를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와 움직임들을 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사랑이 그분 안에 가득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변화될 수 있는지 고려하자.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첫째, 1-5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고 나서 6-19절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마지막으로 20-26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로 인세 믿게 될 사람들 -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17:1-5)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의 마지막 말씀과 그의 재판,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의 사이에 온다. 그는 그의 시간이 왔고 그의 사역 속에서 해오셨던 모든 것이 절정이 되는 순간이 왔음을 인식 하셨다.

이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가 영화롭게 도기를 기도하셨다. 왜 그런가?

이것은 나에게 명례를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전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속하는 계획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전에 그가 지니고 계셨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신호였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위한 한 가지 단서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한 가지 기준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것임을 보게 된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혹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타적인 기도와 비교될 것이다.

##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17:6-19)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는 이제 즉시로 생명을 나누었던 제자들로 향한다. 예수님은 그의 치료하심을 보고, 그의 가르침 아래서 배웠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예수께서는 어떤 고난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앞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기도는 제자들의 순교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사도들, 그리고 로마 정부 사이의 갈등을 전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 간구했다.

예수께서는 기도했다, "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 17:14). 그는 그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세상과 등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이다. 세상 문화의 대세는 잘 해봐야 그리스도인의 관습에 대해 무관심하며 더 나쁜 시나리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반대되는 문화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도전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선택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힘든 것인 줄 아셨지만 그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살기를 기도하지 않으셨다. 사실 예수께서는 모든 일들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도하시자 않으셨다, 대신에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15) 라고 기도하셨다.

우리의 기도생활을 위한 또 한 가지 힌트는 15절에 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당하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에, 예수님의 기도는 곤란이 제거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져다주는 권능을 더욱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힌트를 준다.

부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체와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기도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강점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련할 때,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동행하는 더 큰 필요가 있다.

##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다 (17:20-26)**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째 문제로 돌아선다 --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을 위해 기도하신 (17:20). 예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아직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하신 대상이 바로 교회였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듣는 것은 위로를 준다.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 베일이 벗겨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기도 속에서 발견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어 그의 일을 하시며 (14:10) 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두분은 하나로 존재하고 일하신다(10:30). 예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11절) 저들의 증거를 통해 얻게 될 사람들, 즉 교회 역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다(C.K. Barrett). 그러나 하나됨이 의미가 제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 양식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이거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듯이 교회 내의 각 지체들도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가운데 통일성(統一性)을 띠는 것이다 (15:1-8; 고전 12:12, 13).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는 질적 측면에서 엄연히 구분된다.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이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내용이다. 물론 이는 세상 전체가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15:20, 22, 24). 다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비록 불신 가운데 있지만 장차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하나됨은 성도들의 배후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모든 은혜에 의한 것이다. 결국 성도들은 예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와 연합(聯合)한 증거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의 영광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5절)과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들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예수는 마지막 설교(16:14 주석 참조)와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 십자가와 영광을 분명하게 연결시키셨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의 역설적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자들 역시 아들의 영광을 소유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요 영원히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다(딤후 2:12; 계 20:4).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 속에서 나타났듯이 제자들의 영광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다(눅 9:23). 믿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순종과 겸손과 수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들의 십자가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제자됨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획득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낼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24절).

'나 있는 곳'이란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예수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13:33)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 오리라'(13:36)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결국 미래의 시점을 영두에 둔 것이며, 종말론적인 소망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더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11절) 말씀하심으로 임박한 십자가의 수난과 영광을 예고하신 바 있다. 이제 제자들을 당신이 계신 곳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뒤를 좇아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L. Morris).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영광에 참여하였으나(22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보좌에 앉으신(계 3:21)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하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겸손과 친절함으로 우리의 논쟁을 다룰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다. 세상이 우리를 서로 화해하는 모델로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도록 고무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용서하는 일로 뻗어 나감으로써 격려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지만 교회들은 갈등으로 차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고 기도하셨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단지 서로 사랑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우리의 교회들은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갈등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기도의 권력에 의지해야 한다. 당신이 속한 소그룹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자.

## 질문

1.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2.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방법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3.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4.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5.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오래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건강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일하도록 당신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가?

7.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간구하셨는가? 당신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8.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9.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두 세 가지 배운 것은 무엇인가?

## [참고]

### 코이노니아 (Koinonia)

코이노니아는 때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이해 없이 사용되어진다. 우리는 그것이 교제 (fellowship) 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교제는 무엇과 같은 것인가?

신약학 학자인 George R. Beasley-Murray는 "저희도 ...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 17:21)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교제의 깊은 목표라는 것을 주장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에 의해 하나 됨을 얻는다, 그리고 그 하나 됨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되풀이 될 때, 코이노니아가 활력을 얻게 된다.

좋은 교제로 하나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다:

- \*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함
- \*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가짐
- \*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시킴으로써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함
- \*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중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간주함.

---

## 단원 2: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6과(요한복음 18:15-27; 18:33-19:16)에서 고난에 처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압력 속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가 나타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비록 압력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에게 신실했어야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7과(요한복음 19:16b-30, 38-42)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과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단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6과	예수님을 심판함	요한복음 18:15-27; 18:33-19:16
7과	생명을 주는 죽음	요한복음 19:16b-30, 38-42

---

1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면 2단원의 6과와 7과에서 인용한 모든 성경말씀은 개역개정판에서 인용한 것이다.

<b>[제 6 과]</b>	<b>예수님에 대한 판결</b>
<p><b>핵심본문</b> 요한복음 18:15-27; 18:33-19:16a</p> <p><b>배경</b> 요한복음 18:1-19:16a</p>	<p><b>학습주제</b>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각 사람에게 그 분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도전을 준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 나타나는 각각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별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검증하는데 있다.</p>

## 들어가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안전마저도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마주하셨다. 고난 주간(요 12:13)의 시작에 있었던 “호산나!”라는 군중의 외침은 사라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가야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랐고, 자신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을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판결에 동요하지 않았고, 용감했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적개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군중의 적개심,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불의,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읽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의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 **유다의 탐욕 (18:1-14)**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고, 체포되시던 날 밤에도 기도를 위해 겿세마네 동산이라는 친숙한 장소에 가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다와 모든 제자들은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한 무리의 군사와 경비병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요 18:4). 그 분은 이미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 그 분은 이미 자신에게 닥쳐 올 조롱, 폭력, 고통, 그리고 수치를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 분은 병사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다(18:5).

“스스로 있는 자” 라고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 분이 이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다.<sup>1</sup> 그들은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빌립보서 2:11).

베드로는 적과 싸우기 위해 용감하게 칼을 빼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용기가 그를 내버렸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탐욕이다. 그는 몇 개의 동전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는 또한 제자들의 돈을 맡은 자였고 돈궤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였다(요 12:4-6). 불행한 것은 물질의 욕심으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이 유다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이다.

### **베드로의 두려움 (18:15-18)**

예수님은 체포되어 묶이셨다. 그러고 나서 그 분은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도망쳐버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그가 목격자다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대제사장 집의 뜰로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 18:17).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겠노라고 말했다(13:37).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3:38). 베드로는 동산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보호했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종”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눅 22:56).

고린도전서 10:12절에서 우리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라고 썼을 때, 아마도 이 상황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베드로가 깨어서 예수님과 동산에서 기도했다라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발견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때 그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군중의 분위기가 우리를 대적할 때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는가?

## 대제사장의 위선 (18:19-24)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서 겪은 고난을 언급하고 있다. 안나스는 기원후 6-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적어도 자기의 아들 다섯과 손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다.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죄인의 일반적인 권리가 무시되어버린 경찰의 심문에 가까웠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자신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권리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물어보았다. 비겁하게도 경비병 가운데 한 명이 아직도 묶여 있는 예수님을 때렸다.

제사장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죽이고 있던 그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야 했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조롱하고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포함하여 잔인함의 가장 극악한 행동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 가운데 어떤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것이었다(마 23장; 요 19:11). 예언자 에스겔은 양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양을 찢던 목자들을 꾸짖었다(에스겔 34:8). 우리는 설교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로 그들의 삶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베드로의 부인 (18:25-27)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자기가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에게조차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하였다. 4세기의 유능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혈기왕성한” 제자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무기력해졌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는 꿈쩍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부인한다” 고 말하고 있다.<sup>2</sup>

## 빌라도의 불안 (18:28-38)

예수님은 가야바로부터 총독의 공식 주거지인 관저로 끌려갔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관저로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선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러한 전통은 이방인의 집은 정결치 않다는 유대인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었다. 신약성서 학자인 죠지 비슬리-머레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해지기 위해 종교의 외적인 규정들에 대하여 얼마나 세심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라고 말했다.<sup>3</sup>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다.

스데반을 돌팔매질로 죽인 것은 나중에 이들의 말이 옳지 않은 것임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의 총독만이 허락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을 원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들기를 원했다. 돌팔매질은 예수님을 순교자로 만들지도 몰랐다. 예수님은 순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속죄물로 오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23).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자신이 직접 받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인지를 물었다(요 18:33).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것이 스스로 하는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냐고 되물으셨다. 빌라도는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겼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 (요 18:36).

빌라도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네가 왕이냐?” 고 물었다.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고 대답하셨다(18:37). 빌라도는 지금도 유명한 질문으로 응답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18:38). 빌라도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거기에서 끝이 났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소 내용에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보았다. 그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불안과 가이사와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진실을 왜곡했다.

진실에 대한 것 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천국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빌라도는 진리이신 분 앞에 서 있었으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놓쳐 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인정을 받기 위해 고귀한 것을 버려야 하다니!

### **바라바의 방면 (18:39-40)**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에 호소함으로써 예수님을 방면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바라바냐고 제안했다. 그들은 바라바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바라바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강도로 묘사되었다. 마가복음 15:7절에서 그는 폭동 당시에 살인을 저지른 폭도로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무죄한 예수님 대신에 악명 높은 죄인의 방면을 요구했다.

바라바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죄인의 실례이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 **사람들의 적개심 (19:1-16)**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넘겨졌다. 이러한 채찍질에 사용된 채찍에는 대못 혹은 뿔조각이 함께 달려 있었다. 채찍질을 당하면 희생자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서 쓰러지거나 혹은 죽기도 하였다.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십자가의 무게에 쓰러지셨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소리쳤다(요 19:3).

너무나 참담하게 폭행을 당한 애처로운 모습은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요 19:7)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져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물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놓아주거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력도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권위도 없음을 말했다.

군중들은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빌라도를 협박했다. 빌라도는 포기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고 물었다.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다(19:15).

인간의 잔인함은 악의 실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예수님에게 가해진 포악함은 개인적 목표와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문하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적용 및 실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인간의 죄의 끔찍함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된다. 예수님은 속죄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을 이 사명으로부터 그만두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동료의 배신, 친구의 부인, 하나님을 대언해야 할 사람들의 위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의 잔인함을 마주하셨다. 그 분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셨다. 그 분은 담대하게 겸손과 동정심으로 서 계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탐욕, 두려움, 불안, 그리고 적개심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 주셨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구세주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 질문

1. 예수님의 행동은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는가?
2. 예수님의 행동은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3. 탐욕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는가?
4. 두려움은 언제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가?
5.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허용하는가?

6. 하나님(기독교를 포함하여)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인함의 실례는 무엇인가?

## [참고]

###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이며 제사장 가문에서 비롯되었다. 헬레니즘 시대에(기원전 333-70년) 성직자가 나라를 이끌었다. 성전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사실상 유대 정부의 지도자였다. 그는 통치 지도자들에게 유대를 대표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복지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까지(기원전 175-163년),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다. 기원전 37년에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통치는 제사장들에게서 세속적인 왕에게로 넘어갔다. 헤롯은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그들의 역할을 의식을 집행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은 대제사장을 임명하였고 대다수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으로 제사장직을 매수하였다.

### 적용

-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간절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겠다.
-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다.
- 불의로 인해 희생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겠다.
- 다가가지 못한 이웃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도록 내가 속한 교회를 격려하겠다.

<b>[제 7 과]</b>	<b>생명을 주기 위한 죽으심</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한복음 19:16b-30, 38-42</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한복음 19:16b-42</p>	<p><b>학습주제</b>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p> <p><b>탐구질문</b>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들을 추적하고, 나는 그 의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p>

## 들어가기

예수님은 속죄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마가복음 10:45). 그 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완성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당신에게 결정의 시간은 무엇인가?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고 말했을 때였을 것이다. 존 케네디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지 말고 -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 보아라” 고 기억에 남는 말을 남겼다. 마틴 루터 킹의 목적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다. 그 분은 선생님이셨고, 도덕적인 모범이셨고, 동정심 깊은 치료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이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분의 주된 임무는 아니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으셨고, 이 사명으로부터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고난 받아야 할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요 2:4).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는,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셨다(6:15).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부추겼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라고 말씀하셨다(7:6,8).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빛” 이라고 선언하셨다(8:12). 그러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20).

그러나 요한복음 12:23절에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다(12:27).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때가 왔음을 알고 계셨다(13:1).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라고 하셨다(17:1).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개심과 성경의 예언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려 깊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자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 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오셨다(눅 19:10).<sup>1</sup>

##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다 (19:16-24)**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고 있지는 않다. 단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역사적인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건 뒤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게 된다. 신약성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십자가 처형에 의한 죽음보다 더 끔

찍한 죽음은 없었다. 로마인 자신들조차도 공포로 벌벌 떨었다. 씨세로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이라고 정의하였다. 타씨투스도 ‘비열한 죽음’이라고 말했다....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이었고, 노예와 죄인의 죽음이였다”고 말하고 있다.<sup>2</sup>

죄인이 십자가의 가로 막대를 지고 세로 막대가 이미 세워져 있는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것은 일반적이였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갔을 것이라고 믿는다. 로마 제국은 죄인들의 범주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도록 했다. 이삭이 자기 자신의 희생을 위하여 장작을 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매 맞고 피 흘리시면서 군중들이 있는 복잡한 거리를 지나가셨다. 그 분은 해골,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날에 사용된 십자가의 모양은 X 또는 T자 모양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가 놓인 것으로 보아서, T자 모양의 십자가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5~7 인치(13~18cm) 크기의 못이 손목과 발을 관통하여 박혔다. 일반적으로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매달렸지만, 마실 것을 주기 위해 막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어느 정도 높이 매달렸음에 틀림없다. 비록 못으로 인해 많은 양의 피를 흘렸으나, 일반적으로 죽음은 질식으로 인한 것이었다.<sup>3</sup>

관례에 따라 처형된 범죄자의 죄명이 알려졌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19:19).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신 것을 나타내고, “왕”은 예수님의 존귀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화를 내면서 제목을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고쳐주길 요청했다. 이번만은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여 기록된 대로 두게 하였다.

시편 기자는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예언했다(시편 22:18).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호송했던 네 명의 군인이 예수님의 겹옷을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졌다. 그러나 통으로 된 속옷은 찢지 않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

어떤 사람들은 통으로 된 속옷을 제사장의 옷과 같다고 하거나, 혹은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단일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 두 개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그림은 없다. 그곳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발치에서 군인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다”고 말한다.<sup>4</sup>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잔인함과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19:25-30)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자신의 천국 사명을 완성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셨다. 예수님은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있던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 19:26-27)

이 장면은 마리아의 첫 아들인 예수님이 비록 온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분은 하늘나라의 임무를 수행하시면서도 육신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인성은 또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에도 나타나고 있다(19:28).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동산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18:11).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갈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이후에 원가를 마셨다는 표시는 없다. 그 분은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나서 붙잡히셨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앞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의 갈증은 고통에 대한 또 다른 표시였다.

예수님은 앞서서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거부하셨는데(막 15:23), 그것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기자가 예언한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21)처럼 식초는 받으셨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자신들의 문지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입술에 우슬초에 적신 신포도주가 주어졌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9:30). 십자가의 고난이 끝났다. 예수님의 때는 완성되었다. 대속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로마는 관례적으로 죄인들을 죽을 때까지 몇 일 동안 십자가에 내버려 두었다. 십자가에서는 대개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까마귀가 그들의 육신을 찢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신은 그 옆에 내버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과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길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서둘러 죽이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피를 쏟고 질식사해서 서둘러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sup> 부러진 다리로는 육체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질식이 발생했다.

그러나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 결정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다(19:36).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19:34).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채찍질로 인해 피가 예수님의 가슴에 모였고 창으로 찔렸을 때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심장 주변에 있는 주머니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이다.<sup>6</sup> 물과 피는 침례와 성찬 의식을 상징한다는 영적인 고찰도 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주요 목적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증거라는 점이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19:35).

##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들 (19:38-42)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복음에서 산헤드린의 부유한 구성원으로 확인되고 있다(마 27:57-60; 막 15:43-46; 눅 23:50-53을 보라). 역시 산헤드린의 구성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공개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 왔다(요 3:1-10; 7:50절을 보라).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을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충성심을 몰래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로 묘사하고 있다. 요셉과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는 산헤드린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졌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준비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대단한 용기를 나타내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공개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엄청난 양의 향료는 왕의 장례를 위한 선물이었다.

요셉의 담대한 요청과 니고데모의 넘치는 준비는 이들과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들리셨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불러온 사람들의 실례가 된 것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때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완성된 것이다. 그 분의 죄 없는 삶과 대속적인 죽음은 “죄의 값” (롬 6:23)을 흑독한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다.

용자를 다 갚았을 때, 증서에 지불 완료!라는 도장이 찍힌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죄 값이 지불 완료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sup>7</sup>



## 질문

1.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도전들은 무엇인가?
2.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는가?
3.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은 무엇인가?
4.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돌보신 것은, 당신의 천국 사명과 이 땅에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우선순위를 적용하게 하는가?
5. 당신의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가?
6. 당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는가?

## [참고]

###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친구들 (19:25-27)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멀리 서있던 세 명의 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막 15:40).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근처에 서 있던 사람은 네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 여자들은 군인들이 물러나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왔을 것이다.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이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예배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추측이 오랫동안 있어왔다.<sup>8</sup>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했던 측근들은 얼마나 이상한가! 우리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곱 귀신을 쫓아냈다(눅 8:2).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왕국에서 자기 아들들을 위한 특권을 요청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선하거나 혹은 너무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적용

-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해주는가?
-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네 여자의 다양성은 현재를 사는 개인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b>[제8과]</b>	<b>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한복음 20장1절-18절</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한복음 20장1절-18절</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신원과 사명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도록 부르신다.</p> <p><b>탐구질문</b>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길 바라시는가?</p> <p><b>학습목표</b>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설명한다.</p>

## 들어가기

깊은 좌절감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요지는 장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곳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기념일이나 생일 때에 꽃을 들고 찾아가는 특별한 곳이다. 요지는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물질적인 장소이다. 부활절은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에 대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랑을 그 해에 먼저 보낸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억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의식하고 있다.

부활절은 단지 무덤을 방문하는 날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의 경우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의 경우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던 제자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한 사람이 되었다.

요한복음 20장은 마리아의 제자로서의 4단계의 성장의 흔적을 보여준다. 모든 단계에서 마리아는 보고 들은 것에 반응했다; 이런 반응들은 마리아를 제자로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 과는 우리들이 이런 마리아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부활절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에 대한 기억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은 신약성경에는 “막달라” 라고 알려진 미돌이라는 마을출신인 한 여인의 믿음의 성장을 추적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아마도 ‘가다라’ 라는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한 남자가 마귀들에 사로 잡혀 있다가 치료함을 받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마태복음 8:28-33).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믿는 이방인을 대면하셨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방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가다라’ 에서 귀신들린 남자처럼 마귀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누가복음 8:2).

믿음의 여정에 처음 단계에서 마리아는 장례의 예식 절차로서 무덤을 방문했다. 장의사는 1세기와 같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제공한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을 그 지역의 절벽에서 깎아 낸 동굴에 묻는다. 가족들은 죽은 사랑하는 사람이 예식의 절차를 따라서 실용적이며, 기억에 남으며, 영적이기 원한다.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동굴 중앙에 놓인 벤치에 시신을 놓고, 돌을 굴러 놓거나 둥근 돌로 입구를 막고, 다른 돌로 둥근 돌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날 시신을 닦는 예식 때문에 다시 온다. 그 다음 날은 애통하는 자들이 돌들을 옮겨놓고, 둥근 돌을 입구에서 옮기고, 시신을 닦고, 죽은 시신을 향신료로 덮는다. 안식일 전 날 죽은 자의 시신은 이틀 밤을 동굴 안에 놓아둔다. 애통하는 자들은 주일 아침 일찍이 와서 시신을 닦는 예식을 함으로서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대부분의 시신들은 1년 안에 부패 한다. 추도 첫해에는 동굴 안에 가족들의 장지 안에 있는 납골당에 뼈들을 보관한다. 그런 다음 이 예식은 끝난다.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마리아는 주일 아침 일찍 도착하여 죽은 시신을 준비하는 예식을 준비하려 했다.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죽은 시신이 도둑을 맞은 것으로 추측했다. 무덤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명백히 흔하게 있는 일이었고 로마 황제는 이런 도둑질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는

칙령을 내렸다(작은 조항을 보라, “나사렛의 비문”). 마리아가 믿음의 첫 단계에서 빈 무덤을 대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고,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실제적이다. 그녀는 장례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왔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무덤에 놓여 있는 옷들을 보고 한 반응이다.

## 옷들을 봄(20:3-15)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후에 무덤으로 달려갔다(요한복음 20:2-4). 예수님의 옷을 본 제자들과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는 증거를 먼저 보았다. 첫 번째 제자는 입구에서 자세히 보고 무덤에 있는 옷을 보고 “믿었다”(20:8).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갔고, 장지에 있는 옷의 상태를 알아봤다. 제자들은 보고, 믿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리아는 잃어버린 시신에 대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 할 증거를 찾으려고 정원에 남아 있었다.

요한복음은 장지의 옷들에 대하여 두 번 언급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는 베로 동인 채로 나왔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잠시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는 결국 죽음의 실체를 만났다. 그의 과거는 그와 함께 회복되었다.

나사로의 경우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옷들은 무덤 안에 개어져 있었다. 구경꾼들에게는 예수님의 옷들의 상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옷을 뒤로하고 무덤을 정복하신 것을 보았다. 그분의 과거의 삶은 완성되었다. 새로운 새벽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래가 부활의 옷으로 현재를 점령했다. 두 번째는 옷들의 상태가 도둑맞은 시신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도둑은 옷들을 잘 개어서 가지런히 놓을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가지런히 접힌 수건은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두 사람이 시신이 누워있던 양쪽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랍비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놓여 있던 옷들 이상을 보거나 천사들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처럼 몸을 낮추어 자세히 보았을 때에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 때문에 찬란한 천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놓쳤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불완전한 믿음의 비밀에 연관 되었다. 한 명의 제자는 믿었고, 다른 제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두 제자가 모두가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20:9). 한 사람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그들의 믿음과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옷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것의 특별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 상실의 여정에서

그녀의 슬픔은 천사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세 명의 제자들이 왜 그때까지도 부활의 소망이 불완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무덤의 장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슬픔에 잠겨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들이 과거의 예수님의 옷에서 현실 속에 예수님께 눈을 돌리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 주님을 만남(요한복음20:16-17)

믿음의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로 마리아와 정원에서 직면하셨다.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시작했고, 마리아는 즉시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슬픔의 단계에 있는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거의 주님과의 관계에 집착을 한 나머지 마리아는 주님을 선생님이요 자신을 제자로만 보고 있다: 랍비(20:16).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분은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의 기억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으로 깨닫기를 원하셨고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20:7)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

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에 꾸짖은 것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한다. 헬라어로는 잡지 않다, 만지지 않다, 매달리지 않다, 옷에 매달리지 않다, 등으로 해석이 된다. 무덤 안에서 옷에 대한 문맥을 볼 때에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옷과 연관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깊은 관계를 하기 맺기 위해서는 옷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말아야 했는데 이유는 마리아 자신이 과거의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보았던 기억이 바로 옷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선생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요한복음 1장). 주님은 밤에 니고데모를 가르치셨다(요한복음 3장). 마리아는 주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 과거의 기억 속에 있기를 원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셨다(20:17).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거에 집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예전에 소중한 추억들에 다시 불을 붙이거나, 좋았던 시절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과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과거의 역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추측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부활은 우리와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사신 주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를 변화시켰다. 부활이 일어나면 과거는 다시 반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를 점령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도록 하며 특히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슬퍼할 때는 더욱 그렇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무덤에서 망설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매일의 생활방식을 살기 위해선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세 번째 단계의 부활의 믿음은 첫 번째 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직면한 후에는 전에 살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풀려났다. 상실의 과정에서 과거의 향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구름과 같은 것이다. 죽음은 관계들을 변화시켰지만 부활은 죽음과 무덤의 주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바꿔 놓았다. 삶은 더 이상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부활은 변화되는 삶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 소식을 말하기(20:18)

마리아는 변화된 제자로서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처음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여정은 부활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두 번째 무덤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을 만지고 난 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랍비’에서 ‘주님’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부활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로 오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보내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증인도 믿음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1세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초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말에 진실성을 알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인도를 따랐다.

마리아의 마지막 행동은 마지막 믿음의 단계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다(20:18)

## 적용 및 실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족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 그는 그들을 장지에서 만나셔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새롭게 대하도록 하신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은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신뢰하며 미래에 대하여 자신들을 열어 놓는다.

슬픔에 잠겨있던 학생에서 부활의 사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았다(20:17),

그래서 우리도 슬픔에 잠긴 자를 찾아서 그들과 동행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똑똑한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의 여정에서 의도된 인내가 요구된다. 제자들이나 마리아처럼 과정은 어느 정도의 불완전한 믿음과 잘못된 인식이 결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장지에서 집으로의 여정이다. 충성된 제자로서 우리는 유족들에게 연락하고,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동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 질문

1. 당신은 슬퍼하는 학생에서 부활의 증인 둘 중에 어느 여정에 있는가?
2.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슬픔의 여정은 얼마나 걸리는가?
3.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유족들에게 믿는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4. 당신 개인의 상실의 경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말들은 무엇인가?

## [참고]

### 나사로의 비문

나사로의 비문은 티베리우스(A.D.14-37) 이나 클라우디우스(41-54)의 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시저의 법령. 산소들이나 무덤은 절대 훼손이 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을 예배하거나 아이들과 집안의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들에게 영구귀속이 된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무덤을 파손했다거나, 무덤을 파해쳤다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 훼손하거나, 막아놓은 입구를 열어놓는다거나,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고 신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나는 이것을 심판에 회부한다. 죽은 자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방해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금한다. 이런 위반을 했을 경우에 나는 무덤에 대한 위반으로 위반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권고한다.<sup>1</sup>



## 상실한 자를 도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추모일들을 기억한다. 이런 특별한 날들은 노트나 카드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텍사스 샌 안토니아의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은 과부나 홀로된 남자들에게 부활절 백합들을 전해주고 있다. 이런 작은 행동은 상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한 방법이 된다.

<b>[ 제 9 과 ]</b>	<b>예수님의 사역에 보냄을 받음</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요한복음 20장19절-23절</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요한복음 20장19절-23절</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과 축복은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같이 섬기면서 살도록 허락하신다.</p> <p><b>탐구질문</b>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당신을 보내시길 원하시는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특별함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능력 주심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분별하도록 하라</p>

## 들어가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주님은 그들을 대사들과 같이 대우하셨고, 삼위일체의 도구로 준비하셨다.

미국 외무성의 직원들은 자국의 권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내무성은 외교관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문제들을 다루고, 외국 땅에서 미국을 물리적으로 보이도록 보낸다.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큰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삼위일체를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밤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추종자에서 하늘의 보냄을 받은 대사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능력 안에서 평화와 상처들과 용서와 함께 보냈다.

## 아버지께로 오는 평화(20:19)

부활의 첫 날 밤은 외교가 필요 없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은 유대인 친구들 사이에서의 평판과 예수님의 추종자로서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에 겁쟁이가 되었다. 유대의 지도급들은 로마인과 리더를 처형하기 위해서 공모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실 때에 그를 버렸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몇 명의 여인들만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요한복음 19:25-26).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음에 체포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대 지도급들이 그들을 체포하려 했든지 안 했든지, 그들의 두려움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 할 때에 안돈시키기 위해서 대사들을 보냈다. 예를 들어 사사기 6:23에 주님의 천사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평화의 인사로 나타났다.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움의 구름들이 사람들을 덮고 있었다. 보통 그들은 유대인 사이에 ‘당파’를 두려워 했다. 요한복음 17장3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거처에 대하여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12:42 에서는 몇몇의 권위자들이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공중에서 고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27 에 주님은 예수님의 부재중일 때에 아버지에게서 오는 평화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33 에는 주님은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의 평강을 주셨다.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그랬듯이 부활 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재중이고 핍박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문들 사이로 다니실 때에 평강을 구체화하셨다. 왕이 다른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대사를 보내듯이 놀란 추종자의 험한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셨다. 주님의 행동은 몇 세기 전에 기드온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도록 보냄을 받으셨다.

## 아들의 상처들(20:20-21)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점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도록 하셨다. 주님은 당신의 상처들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께로 오는 평강을 확신한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들과 직면하셨다(20:19). 주님은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20:20).

예수님의 상처들은 그분의 약점들을 보여준다. 커뮤니티는 고통스런 결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상처들과 아픔들은 이러한 것을 이루는데 부분이 된다. 십자가의 처벌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제자들도 이러한 과정의 부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처들은 트로피는 아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은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약점. 만약에 제자들이 완전한 대사들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른 선물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심각한 결점들도 많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나(유대인) 믿음의 친구들이 과거의 그들의 실수들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은 비판과 헐박과 두려움으로 둘러 있는 곳에서 닫혀 있는 방에 있어야 할 이유들이 많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에서 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과거의 어둠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예수님의 상처들은 부활의 밤에 잠가 놓은 방에서 삼위일체의 임재를 알아야 했다. 요한복음 20:21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20:19 에 아버지께로 평강을 가져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하셨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20:21). 주님은 방에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파송하셨다.

헬라어의 “보내다”의 뜻은 문맥이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요한은 이 단어를 다른 복음서 보다 많이 사용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나라의 왕이 대사를 자국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어서 사용하셨다. 고대에는 왕은 항상 집에 머무르고 대사들이 하는 일에 의존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이 문장을 바꿔 써야 한다. 아버지께서 대사로 가는 권세를 주셨듯이, 아버지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나는 너희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어 가게하고, 우리는 너희가 가는 곳에 함께 동행 한다. 다른 말로 제자들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람들은 아버지의 메시지의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상처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은 아들의 권세와, 보호와, 약점등의 보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핑계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제자들이 사역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둠 때문이다.

달린 문 뒤에는 예수님은 커뮤니티의 하나를 위해 실패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은 침례 후에 나중에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그들의 친구인 유대인이나 가족들이 그들의 회심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그들이 아직도 죄와 다투고 있지만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의 죄를 덮어다. 그들은 상대방의 상처들을 서로가 보며 하나가 되는 힘으로 사용하게 하신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신다.

상당하는 친구가 말한다. “아픔을 낭비하지 말아”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들을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전하는데 사용하신다. 마지막 단계는 성령을 통하여 용서를 나누는 것이다.

## 성령의 용서하심(20:22-23)

삼위일체의 미션은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심들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평화와 약점을 주셨다. 다음은 제자들을 도구로 준비하셔서 서로가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 나누게 하신다. 성령의 용서하심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유대인 친구들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것을 바꾸셨다.

성령님은 신약에서 많은 형태를 가지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 같은 움직임이 있었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되었다(사도행전 2:1-6).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부활의 저녁에 조용한 숨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호흡은 제자들에게 창세기 2장에 첫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용서의 바람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sup>2</sup>

요한복음 20:23 이 제안하듯 제자들에게 용서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성령은 그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을 더듬는가를 바꾸신다.

제자들은 용서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죄악들을 씻을 힘을 주시는데 현대어로 ‘점수를 먹이다 혹은 점수를 지우다’의 뜻이 있다. 부활 전에는 그들 앞에 두려움과 실패의 구름이 항상 있었다. 그들은 점수를 잘 지킨다. 그들이 부활 후에도 똑같이 했다면 죄의 씻음은 없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했을 때에 죄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신자들을 벌을 주고 과거의 것들을 머리에 담아 두었을 것이다.

성령님은 부활 후에 용서해 주셨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대표자로서 그들은 과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용서의 기억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상처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다. 유대인들과 친구들의 행동들은 세상에 용서를 전해주기 위한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한다.

대사가 다른 외국을 방문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나라의 권익을 대표한다. 또한 대사는 관계의 역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을 가지고 대사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보복의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대사는 과거의 아픔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대사가 이런 아픔을 사용하며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배울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대사는 과거의 아픔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자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힘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은 자원이 되었다. 인간으로 그들은 과거를 잊을 수가 없지만 과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 점수를 기억하거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나라가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은 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 주님은 점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들을 성령님의 용서의 창조적인 호흡으로 새로운 관계를 본 것이다. 그들이 친구들이나 유대인이나 실패한 믿는 자에게 가서 과거의 점수를 완전히 지워버림을 받은 것이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잊거나 완전하게 용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바꿀 수는 있다.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아픔을 준 것이나, 상처를 나게 했거나, 후회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의 호흡으로 다른 기억들의 대행자가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아픔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의 문을 넘어서도록 창조하셨다. 크리스찬 작가요 교수인 루이스 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과거의 쓴 감정을 지우지 않는다. 치유 받은 기억은 지워진 기억이 아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구들로 준비하셔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나 실패한 제자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런 그룹은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질문하는 자들이다. 제자들을 위협했던 같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까이 가버나움에서 자라났다. 그들을 잘 알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첫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미션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사로서의 도구들을 주셨다.

외교관이 국무부의 수장으로 미션을 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유익들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삼위일체의 도구들이 필요하다: 평화, 약점과 용서이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특별한 관계를 위하여 삶에 생기를 붓는 것이다.

## 질문들

1.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받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상처들은 무엇인가?
2. 당신은 용서하다와 잊어버리다 라는 개념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다 라는 개념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가 있는가?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어떤 좋은 것들이 발견되었나?
3.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 오셨는가?
4.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평화와 인간의 정복으로 이룬 평화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5. 믿는 자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도 많은 정보들을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 [참고]

### 믿는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요한복음은 믿는 유대인들의(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에피소드와 믿지 않는 이방인(빌라도, 헤롯)을 기록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듯이 유대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었다. 적어도 다섯 개의 유대 종교 부류들이 있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스, 헤롯당, 그리고 열심당이다. 그들 중에 소수만이 유대인의 법과 우선권에 동의했다. 예수님께서 심문을 당하시던 밤에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리더십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요한복음은 썸족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가족이 없이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의 회당과 가족들의 네트워크의 바탕을 통해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갔다.

### 영적인 형성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세계에서 나와서 인생의 짐을 나누는 친구들과 동행하고, 부활의

빛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영적인 형성이라고 부른다. 목적이 끝이 없는 프로그램의 성장보다는 부활은 우리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부활의 여정에 당신의 솔직함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를 찾으라. 당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라. 두 세명이 모이는 곳에 용서하시는 성령의 호흡이 있다.



<p><b>[제 10 과]</b></p>	<p><b>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함</b></p>
<p><b>핵심본문</b> 요한복음 20장 24-31절</p> <p><b>배경</b> 요한복음 11장 16절, 14장 5절, 20장 24-31절</p>	<p><b>학습주제</b>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도록 예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가?</p> <p><b>학습목표</b> 구주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복음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명확히 알아내는 것</p>

## 들어가기

도마는 비록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 버렸다.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졸업을 하기 전 학기말 시험을 보려고 학생들이 모인다. 졸업까지 일 주일을 남겨 둔 상황에서 졸업반 학생들이 할 일이라고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른다. 모든 사람이 다 참석했는데 시험을 쳐야하는 한 학생이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마쳤을 때 선생님은 결석한 학생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문은 잠겨 있고 불은 꺼져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도록 내버려둬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제자 중 한명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 하셨다. 도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행했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현현을 놓쳐버렸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과 회의로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복음에 회의적인 사람을 격려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 잃어버린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셨다.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으로 도전을 주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녀는 다섯명의 남편을 두었고 그 때문에 신앙교적인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만약 그녀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녀는 도덕적인 삶의 실패자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녀는 마실 물이 절실히 필요했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갈증을 풀어 주셨을 때 그녀는 참된 예배의 실체를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복음 4:24)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을 마을에 있는 치유의 연못에서 만나셨다. 그는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정신적으로도 그는 자신의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으며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요한복음 5:7)고 말했다. 영적으로도, 그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성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었다(10:10).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5:6)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간파하셨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길을 선택했고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났다.

사마리아 여인과 병자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그를 따를 사람들로 예견하신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둘 다 자신들의 선택과 처한 상황들로 인해 유대교식 예배에서는 제외되어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마셨고 자신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삼십 팔년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찾아주셨다.

## 잃어버린 제자

부활 사건이 있기전에 도마는 예수님을 따랐었고 필요하면 희생적인 역할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솔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11:16) 선언하기도 했다. 예수님께대한 그의 행동은 그의 경솔함을 잘 나타낸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를 명확히 해주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의 깊이는 조금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도마는 우리가 아는 한 그 자리에 없었다. 대부분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십자가사건의 현장에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무덤에 가지도 않았다. 향유를 부으러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다. 일요일 밤 예수님께서 문이 굳게 잠긴 방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다.

도마는 종종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의심이 많은 사람이나 회의론자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번 경우에 도마는 20장 19절에서 23절에 묘사된 다른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슬픔을 표면적으로는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그의 반응은 그에게 더 큰 의심을 안겨주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대신 그는 회의론자로 남아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요한복음 첫 부분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병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도마는 예수님과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했다.

## 임재하신 주님( 20:24-2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일주일의 지난 후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순간을 놓쳐 버렸던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관해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그의 나타나심이 지난 주의 경험을 보다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잠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유대인의 방식대로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지난 번에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20:27). 도마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나는 실제로 만져보는 것이 도마가 할 일의 전부였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행동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가 손을 내미셨을 때 그는 도마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확연히 알려주셨다. 도마의 회의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의 구세주 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확실한 고백을 했다. 그는 “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하고 말했다(20:28)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인사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 즉,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 앓은병이, 그리고 도마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사람들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렸고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었다.

## 보고 믿은 제자들(20:29-31)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였다.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믿음을 다 인정하셨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친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는 격언은 사실이였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를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뿐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수님께서 보지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 하셨다. 그들은 직접적인 만남 없이도 믿었다. 예수님의 이 부활후 현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대대로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오는 세대들도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고백할 것을 믿었다(20:25)

체험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신자들은 삶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변화 되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다. 삼십팔년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건방진 태도를 보였던 도마는 회의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제자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는 그 믿음이 그 제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변화는 “예수의 이름안에 있는 삶”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의 현현을 목격했거나 놓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생활방식을 갖게 되었다. 믿음은 체험적이고 풍성한 것이였다. 사마리아 여인, 병자 그리고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 되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삶의 목표는 “구주와 하나님”이신 분을 향해 재조정 되었다. 그들의 소명과 직업과 경력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믿은 것을 경험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 적용 및 실천

우리는 보고 믿는 삶의 가치를 통해 회의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회의론자들이 필요로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진실한 삶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생수와 육체적인 치료와 개인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만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다. 그는 육체적인 치유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누워있는 병자를 발견하셨다. 그는 또한 회의와 의심으로 굳게 잠긴 문 너머에서 도마를 만나주셨다.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회의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그들은 바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병원에서 대하는 환자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삶의 변화와 차이를 보여주고 그들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 질문들

1. 예수님을 “ 나의 구주와 하나님 ” 으로 믿는 믿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예수님을 믿는데 회의를 들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3.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잃어버린 자 되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4. 오늘 당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 [참고]

누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인가?

도마는 다락방에 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했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준다. 바로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낸 대학생들의 신앙을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75%의 젊은 남녀들이 16세에서 24세 사이에 교회를 떠나며, 40%가 35세 이전에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중 30%는 다른 교단으로 간다.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들을 신앙을 떠난 사람들로 간주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여기신다. 인터넷 매체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화상 대화를 통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인터넷에서의 짧은 말 한 마디가 커피숍에서의 의미있는 대화로 이어 질수 있다.

## 무엇을 할까?

프레드와 마이크는 수년동안 골프를 함께 친 사이였다. 프레드는 항상 마이크가 신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한번도 일요일 아침에 골프를 친 일이 없었지만 마이크는 단 한번도 프레드를 교회에 초청하지 않았다.

프레드가 뇌암 판정을 받았을 때 마이크는 병원으로 그를 방문하기로 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그는 한번도 신앙이 골프장에서 대화의 주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그들이 종교나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마이크는 이제 그자신이 한번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이크가 병원으로 프레드를 방문할 때 무엇을 해야할까? 프레드의 옆에서 그와 함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

<p><b>[제 11 과]</b></p>	<p><b>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b></p>
<p><b>핵심본문</b> 요한복음 21장 1-23절</p> <p><b>배경</b> 요한복음 21장</p>	<p><b>학습주제</b> 아침식사시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p> <p><b>탐구질문</b> 당신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살펴보고 처음 믿는 경우든 또는 성숙한 신앙이든 그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p>

## 들어가기

예수님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작업현장에 나타나셨다. 이 바닷가에서의 아침식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어릴 때 특별한 토요일 아침마다 행해지는 집안의 전통이 있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펜사콜라만을 바라보며 야외용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우리는 Coleman 요리 난로를 켜고 어머니는 베이컨을 구우셨으며 아버지와 나는 부두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우리는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지금까지도 스크램블 에그의 냄새가 나는 듯하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중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닷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그 바닷가는 가족간의 만남의 장소가 아닌 제자들의 작업현장 이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의 남은 생애동안 그에게 가장 필요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 본업으로 돌아가다(21:1-14)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말로 시작된다(요한복음 1:14). 침례요한의 설교 도중에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두 제자인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다( 1:40). 요한복음은 그 첫 번째 제자중 하나와 일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로마식 이름인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다. 갈릴리 바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요단강으로 연결된 이 지역의 젖줄이 되는 작은 호수였다.

이 바닷가는 4복음서에서 나오는 여섯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일터 이기도했다. 그들은 동업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새로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일광욕을 하는 장소와 휴양지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다는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생활터전 이었다. 가난한 어부들이 이 바다에서 15피트(약 4.57 미터)가 채 안되는 배들의 노를 저었고 해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저인망 그물을 쳤다. 그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부들은 밤새 배에 남아서 그물을 지켜 보았다. 아래 부분만 살짝 가린 채 일꾼들은 동틀 무렵이면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 양쪽에 서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해변으로 끌어들었다.

기적적으로 고기잡이에 성공한 것은 제자들에게 흔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여러 번 보았고 이번에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다(21:7)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일에 조언을 해주심으로 제자들의 일을 존중해 주신 것을 주목해 보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 양 떼에게 돌아가라(21:15-17)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위해서 예수님은 이전에 그를 세 번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18:15-18,



25-27)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은 선한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또 다른 목자가 될 베드로에게 위임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처음으로 목자를 형상화해서 보여주셨다. 그는 자신의 삶을 양문앞에 앞에 누워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비유하셨다. 목자의 몸은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양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누군가 우리를 열고 양을 훔치려 하거나 공격하려 한다면 위험을 인지하고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 간단한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명확하다. 목자는 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양들의 안전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그를 준비 시키셨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이 베드로도 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다. 양떼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고 다른 양을 따랐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인도자로서 그의 능력에 달려있었다. 베드로는 먼저 선한 목자를 양떼보다 더 깊이 사랑해야 했고 양떼를 선한 목자께로 이끌어 와야 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다시 양떼 가운데로 데려오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부로서 가장 잘 아는 일을 맡기셨다. 베드로는 아마도 일을 하기위해 웃을 하나만 걸치고 있었던 것 같다(21:7). 예수님은 그런 그를 그대로 받아주셨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세가지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 숲은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모닥불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목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베드로는 죄책감이 그의 미래를 조종하지 않게 하기위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만 했다.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그 상태로 오래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것과 아주 비슷하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셨다( 13:38; 18:17, 25-27).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 “사랑”은 서로 다르지만 그 효과는 같다. 사랑이란 단어가 사전에 나오는 의미중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질문의 요점은 천천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역과 희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이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안에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다. 완전한 순종은 사랑을 회복시키고 잿더미로 변한 삶을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한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쳐 버렸던 일들에 당당히 맞서도록 힘을 준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대신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사랑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 지위, 거리 그리고 헌신의 정도를 바꾼다. 따라서 베드로의 예수님과 그의 관계도 달라졌고 한번씩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 깊어 졌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세 번의 질문을 받았다.

## 미래로 돌아가다( 21: 18-23)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셨다. 베드로는 평생동안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꼭 최후의 희생을 위해 준비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비슷했다. 베드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희생의 모범이 되었다.

미래를 예측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 뿐 아니라 타인의 운명 또한 알고 싶어 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 경솔하게 앞서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운명이 예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걱정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나 상황이 아니었다.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그들은 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사랑하는 선한 목자께서 주신 동일한 삶의 목표를 따라 섬겼다.

부활은 베드로의 미래관을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생업에 얽매인 어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쉬운 삶의 보장도 받지 못했다. 그는 또한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나은 어떤 특권도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꿔 놓는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거나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미래 또는 언젠가는 우리가 정복할 먼 산 대신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미래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였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신자들도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양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베드로와 같던지 아니면 다른 사명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와 같던지 간에 우리는 오늘이 부활의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같이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위해 살아야 한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한다. 우리는 선한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양 우리중 하나로 또 다른 사람들은 감독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된다. 그러나 그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처음 믿을 때의 부르심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질문에 응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된다. 이런 헌신은 사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베드로가 어부에서 영적인 목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현 위치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천직은

항상 같다. 바로 부활을 경험한 신앙인으로써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어부나 목자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에도 우리는 그를 따르는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을 외국이나 신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사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우리의 단점 까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신다. 직장은 우리의 단점과 장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교회는 신자들이 선교에 동역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다. 성도들은 직장에서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할 일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일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직업의 목표, 꿈 그리고 열정까지도 모두 그에게 말기기를 원하신다. 그는 153마리의 물고기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다. 그는 우리의 일터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관심을 갖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 질문들

1. 어떤 환경과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왔는가?
2.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을 만나시는가? 당신이 월급을 받을 때 또는 무보수로 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3. 목자는 양을 위해 가장 최선의 일들을 한다. 당신이 돌보고 있는 양은 누구인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만약 당신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주기 위해 해야 할 다음 일은 무엇인가?

## [참고]

### 함께 부활의 삶을 살기

만약 우리가 IMAX영화관에서 특수 안경을 쓰고 예수님에 관한 3-D영화를 관람한다면 우리는 화면을 뛰어넘어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요한의 눈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3-D) 그들은 함께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4-D). 믿음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쓴 카드 아래에 놓인 상자를 살펴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개인의 신앙은 그의 삶에 투영된다. 삶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가족들에게 증거했다.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회의적이었던 한 제자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어느 경우를 살펴보든지 우리는 우리처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영성과 헌신이 하나가 된 것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헌신이 없이는 사적인 신앙도 가질 수 없다.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하기위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을 때 교회는 어둠가운데서 부활의 빛을 발할 수 있었고 함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 당신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 본문을 큰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여러 단어들을 강조하면서 읽어보라. 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억양과 강조부분을 바꾸면 문장의 전체적인 이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